

<http://festival.aerospace.go.kr>



공군과 함께하는 2018 사천에어쇼

Sacheon Air Show with ROKAF

2018. 10. 25(목) ~ 28(일) / 사천비행장



Gyeongnam Sacheon
Aerospace Expo

제14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매거진

KAI magazine

2018 October
Vol. 226

MAIN THEME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세계 소형헬기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다!
상호 소통하다!

서프라이즈 이슈

세계 소형헬기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다!



Fly
Together



KAI magazine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매거진

2018 OCTOBER | Vol. 226

창립 19주년 기념사

- 04 창립 19주년 기념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김조원 사장

스페셜 테마

- 06 MAIN THEME_지속가능경영 가치체계
행동원칙 실천가이드_소통과 화합 편①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라

- 10 서프라이즈 이슈
세계 소형헬기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다
16 트렌드 칼럼
소요군 중심으로 국방획득제도 개선해
방위산업 육성에 부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 박진호 보좌관
20 KAI 인문학
영화 <에비에이터>의 주인공
하워드 휴즈의 항공스토리



10

발행일 2018년 10월 10일(통권 226호·10월호·비매품)

발행인 김조원

발행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홍보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면 공단1로 78

담당자 조연진 과장 055)851-6962

제작대행 군디자인연구소 051)796-6600

정보간행물 등록번호 사천 라 00004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ly Together>에 실
린 외부 필자의 원고는 KAI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은 KAI의 승인 없이 무단 복
제, 복사 및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며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을 금합니다.

서프라이즈 KAI

- 10 서프라이즈 이슈
세계 소형헬기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다
16 트렌드 칼럼
소요군 중심으로 국방획득제도 개선해
방위산업 육성에 부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 박진호 보좌관
20 KAI 인문학
영화 <에비에이터>의 주인공
하워드 휴즈의 항공스토리
22 KAI 현장포커스
① 국내 MRO사업 이끌 한국항공서비스
주식회사(KAEMS) 설립 현판 제막식
②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전
'DX Korea 2018' 참가
③ 2018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부모님 초청행사
28 KAI People
항공기자재직 박경석 조장
고정익고객지원팀 김성호 차장
구조시험팀 최명호 책임연구원
30 패밀리가 같다
사업기획팀 민병석 부장 가족의
남해 원천마을에서의 어부체험
34 KAI 이심전심
기체생산2팀 장정환 전임, 김정훈 주임,
이준희·박정준·김도윤 기술원의
꽃다발 선물 만들기 체험
38 나의 여행이야기
KUH사업관리팀 공연종 사원의
가깝고도 먼 유럽, 러시아 여행기
42 KAI toon
슬기로운 직장생활



24



30



34



38



44

위드 KAI

- 44 나눔의 현장
나눔봉사단, 위기가정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의 현장
46 KAI 북클럽
기체생산기술2팀 김영훈 부장이
박금석 사원에게
47 뉴스 브리핑
50 독자세상
51 광고

친애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구성원 여러분!

우리 회사가 창립한지 19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KAI가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성원 모두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오늘의 KAI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시기도 전에,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어려움은 우리 구성원 모두가 우리 자신을 겸허히 되돌아보라는 하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KAI에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구성원 각자는 스스로를 가다듬어 우리가 만드는 항공기가 완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KAI 구성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역량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기업 수준에 걸맞은 업무매뉴얼과 체계를 정비하고, 수리온 체계결빙 감항성 인증 획득, KF-X 기본설계 적기 완료, 한국항공서비스(KAEMS) 출범, 태국 등 해외 수출 항공기의 적기 납품, 군정찰위성 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방산업체 최초 부파방지 경영시스템인증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참으로 수고했다'고 격려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KAI 구성원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KAI가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발생한 해병대 마린온 헬기 사고는 우리와 국민들에게 충격과 상처를 주었지만,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는 마린온 사고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결코 잊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는 이번의 사고를 교훈 삼아 완벽한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항공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실천해야 합니다. 고객들이 항공기를 더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치열하게 고민하여 완벽한 항공기를 생산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을 'KAI 무결점 첫 날'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KAI 구성원 모두는 우리가 만드는 항공기, 위성을 비롯한 모든 제품의 무결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다짐합시다.

친애하는 KAI 구성원 여러분!

KAI 구성원 모두는 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힘든 일일지만 또한, 기대감으로 설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국가 항공우주산업 발전이라는 새로운 길을 쉼 없이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여 우리 후배와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회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회사 구성원과 가족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 김조원 사장



KAI's 19th Anniversary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라

우리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의사소통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 내 조직생활을 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과 업무성과 증대를 위하여 의사소통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업무지식과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해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상호 간의 소통능력도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바람직한 기업문화의 바탕이 되는 올바른 소통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소통의 기본! 듣기의 4원칙



STOP

하던 일을 멈추고
상대에게 집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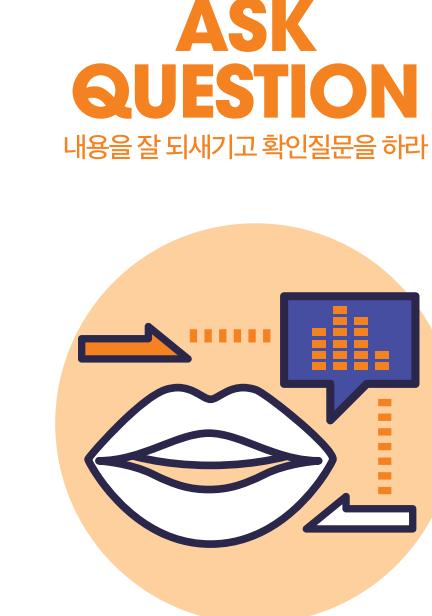
LOOK

말하는 이를 눈으로 바라보라



LISTEN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머릿속으로 정리하라



ASK QUESTION

내용을 잘 되새기고 확인질문을 하라



의사소통 능력은 직장인의 필수요소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어떤 모임이든 유지 가 힘들고 상대방이 친구일지라도 그 관계는 깨지 기 심상이다. 더욱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다. 그것은 상호 소통이 활발한 조직일수록 창조적인 업무가 가능하고 업무성과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평범한 직장인 A는 아무런 설명 없이 서류만 훑던 저주듯 전달하는 상사의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당황한다. 그러면 A는 매번 상사에게 찾아가 업무지시에 대해 되묻고 왜 그것도 모르냐며 편장을 받기 일쑤였다. A는 점차 직장생활에 흥미도 잃어가고 결국 업무성과가 저조해 연말평가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이와 같은 직

장 내 소통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 리서치기관은 기업과 정부기관 등 25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장을 대상으로 조직리더와 매니저에게 필요한 능력을 조사한 결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장 중요한 1순위로 꼽았다. 이는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일이 바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뤄지기 때문이다.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관계 중심'의 소통방식이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은 우리나라 경우와 다른 개인주의 문화 속의 서구인들 조차도 소통에 대한 문제만은 소홀히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활한 소통이야말로 성공적인 직장생활의 필수요소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출처: 잡코리아

나보다 상대방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라

그렇다면, 좋은 소통의 방법은 무엇일까. 커뮤니케이션은 1차적으로 나의 의견이나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내 할 말만 던져준다고 끝이 아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1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완성되는 것이다. 상대가 이해를 못하거나, 내 말에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라면 해당 메시지를 잘 이해했을까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말이나 글의 끝에 '정리하자면~'이라던가 '다시 말씀드려자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사람마다 생각이나 인지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던진 메시지에 대해 상대편이 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은 언제나 내가 아닌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유연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늘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미리 단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흐르기 쉽다. 남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라면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조직의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다.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조직 내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사원들의 경우에는 상사에게 대면으로 보고나 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잘해 보려는 마음에 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곤 한다. 그런데 항상 바쁜 상사에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심상이며, 보고내용이 영뚱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핵심이나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설명이나 이유는 그 뒤에 덧붙여 말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면 더욱 세련된 보고가 되지 않을까.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는 KAI人의 행동지침



의사소통 능력은 직장인의 필수요소

몇 해 전 국내 한 취업포털 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었다고 답해 소통의 부재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 기업들은 좋은 기업문화와 가치 창출을 위해 구성원 간 막혀 있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통이 공동체 속에서 신뢰의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과 창출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카리스마 있는 최고 경영자의 탁월한 경영방식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성공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기업 내에 정착돼야 한다.

탁월하고 원만한 소통은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생명을 불어넣고 기업혁신을 가능케 하는 밑바탕이 된다. 경영학과 군사학을 넘나드는 전략의 대가로 잘 알려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윌리엄 더간(William R. Duggan) 교수는 "기업이 천재라고 하는 소수 인재들에게만 혁신적인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혁신은 한 명의 천재가 자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창출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작·간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개미가 하나의 개체로서는 미미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과정으로 집단적인 지적 능력과 힘을 갖게 되듯이, 기업 경영현장도 한 사람의 창의성 보다는 소통으로 단련된 공동체의 집단지성을 발현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여기며 더 진보적인 소통을 위해 다양한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좋은 소통문화를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도 모든 구성원들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주체와 객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상의·하달과 같은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구성원 간 균형을 잊지 않고 회사의 비전과 전략에 걸맞는 소통채널을 구축해 나가고자 힘써야 할 것이다.



세계 소형헬기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다

우리회사 LAH/LCH 개발사업의 경과와 미래



민수·군수헬기 동시 개발사업

소형민수헬기(LCH)

2015. 06~2021. 01 승객/VIP 수송, 응급의료, 관용 등

소형무장헬기(LAH)

2015. 06~2022. 11 항공타격작전(주 임무) 및 부가임무

* 국내외 연구기관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한 KAI 분석치임



LCH와 연계한 LAH 개발로 시너지 효과 상승

LAH/LCH사업은 우리회사와 AH사(Airbus Helicopters사) 간 국제공동개발 형태로 소형민수헬기(LCH, Light Civil Helicopter, 이하 LCH)를 개발하고, LCH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격통제/무장/임무생존장비를 통합하여 소형무장헬기(LAH, Light Armed Helicopter, 이하 LAH)를 동시에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5년 6월 체계개발을 시작한 아래 LCH는 시제1호기 초도비행을 지난 7월 24일 프랑스 마리냥(Marignane)에 위치한 AH 본사에서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LAH는 2016년 8월 기본설계(PDR), 17년 11월 상세 설계(CDR)를 각각 마치고 현재는 시제기 최종조립단계에 있으며, 내년 5월 시제 1호기의 초도비행을 바라보고 있다.

LAH 개발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LCH와의 연계개발을 통해 개발 및 운용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킨다는 점이다. LCH사업에서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선행 개발된 민·군 겸용 구성품 67종과 LAH사업에서 국내 개발하는 구성품 58종은 대부분 개발을 완료하였거나 품질인증시험(QT) 단계에 있다. 이를 통해 LAH사업의 개발 비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고 무장 및 사격통제체계, 생존장비 개발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LCH사업은 AH사와 LCH 공동개발을 통해 유럽감항당국(EASA)의 형식인증을 득하여 우리회사에서 양산 및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게 되고, 또한 국내 협력업체를 통해 개발되는 구성품은 국토교통부의 부가형식증명(STC)를 획득하고 이를 LCH와 LAH에 장착함은 물론 향후 항공기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LAH사업은 LCH사업으로부터 확보된 플랫폼과 구성품을 기반으로 군 임무장비와 생존장비, 무장체계를 개발·통합함으로써 비용과 노력의 절감은 물론 AH사의 안전성이 입증된 플랫폼과 자동비행조종시스템(AFCS) 적용으로 군 운용 시 보다 안전하고 운용이 편리한 헬기를 확보하게 되고, 향후 운용단계에서도 부품 공동활용을 통해 후속군수지원이 용이할 수 있게 되었다.



LAH/LCH 체계개발 계획

LCH
2015. 06. LCH 협약체결
2015. 08. LCH 체계구조검토(SSR)

2015. 12. LCH 기본설계검토회의(PDR)

2016. 12. LCH 상세설계검토(CDR)

2018. 07. LCH 1호기 초도비행

2020. 04. LCH 개정형식증명(ATC) 획득(예정)

2021. 01. LCH 부기형식증명(STC) 획득(예정)



LAH
2015. 06. LAH 체계개발 착수
2015. 12. LAH 체계요구조건검토(SRR) 및 체계기능검토(SFR)

2016. 08. LAH 기본설계검토(PDR)

2017. 11. LAH 상세설계검토(CDR)

2019. 05. LAH 1호기 초도비행(예정)

2020. 11. LAH 잠정 전투용적합 판정(예정)

2022. 11. LAH 국방규격화(예정)



플랫폼 기반 LCH 개발,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

LAH와 달리 LCH 개발사업은 국내와 국외 헬기체계업체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외업체 기존 운용 헬기를 개량해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회사는 지난 2015년 3월 공동개발 파트너로 프랑스의 AH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AH사의 EC155B1(H155) 헬기를 기본 플랫폼으로 성능 개량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방향은 이미 해외 선진업체에서도 취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미국 시콜스키 S-76은 1977년 최초 모델 출시 이후 이를 기반으로 2012년 S-76D 모델까지 엔진 교체, 기어박스 개선 등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해 왔으며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의 AS365의 경우도 1978년 출시 이후 2002년 EC155B1까지 여러 차례 성능을 개량한 모델을 출시해왔다. 때문에 우리회사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기본모델을 기반으로 헬기를 개발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게 된 것이다. 이미 1,000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기종인 Dauphin Family의 최신형인 EC155B1 헬기는 각종 파생형 헬기로 형식 인증을 획득하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임무 환경에서 검증이 확보된 모델로, LCH의 기반 기종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소형무장헬기(LAH) - 소형민수헬기(LCH) 사업 연계도

국외업체
제안기종
(기본헬기)

국외업체 공동플랫폼 활용으로 국제공동개발
민군겸용 구성품 적용 - 무장/사격통제체계(군용화) 개발

LCH (소형민수헬기)
LAH (소형무장헬기)





LCH초도비행



파생형 개발과 해외 감항당국 인증으로 수출길 '활짝'

LCH는 사업 착수 6개월 만인 2015년 12월 기본설계를 마치고 2016년 12월 상세설계를 완료했으며 지난 해 1월부터 시제기 부품제작에 착수, 마침내 지난 7월 24일 프랑스에서 초도비행을 무사히 마쳤다. 이제 2021년 1월이면 사업이 종료되고 이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LCH가 주목받는 것은 VIP 승객 운송, 응급의료, 관용 및 경찰헬기, 화재진압 용도 등 다양한 파생형 헬기로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유럽 감항당국인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으로부터 개정형식증명(Amended Type Certificate)을 획득하고, 우리회사와 국내 참여업체가 개발한 구성품을 LCH 항공기 체계에 적용하여 국내 감항당국(국토교통부)으로부터 부가형식 증명(STC,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을 획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회사에 구축 중인 헬기의 최종조립을 위한 생산시스템(최종조립 라인)에 대해 해외 감항당국으로부터 생산증명(생산조작승인 연장)을 획득하면 해외 수출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된다. 2014년 기준 운용 중인 민수헬기는 32,375대이며 이 중 LCH급은 2,915대(Forecast International 자료 자체분석)로, 벨사와 AH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레오나르도사가 신형 기종을 출시하여 경쟁 중인 상황이다. 전문기관 등의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회사가 향후 20년 간 LCH를 양산하면 약 420대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내시장 역시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약 150여대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LCH 감항당국 인증

항목	개정형식증명(ATC)	부가형식증명(STC)
감항인증기관	해외감항당국(EASA)	국내감항당국(국토부)
주관기관	국외체계업체(AH)	한국항공주우주산업(KAI)
적용시제	시제 #1(AH사 최종조립)	시제 #2(KAI 최종조립)
인증획득	2020년	2021년
인증범위	신규 캐노피, 성능개량 MGB 등	STC 국내개발 구성품



LAH, 육군 노후 공격헬기의 든든한 게임체인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우리회사가 주도하는 LAH 사업은 육군의 노후 공격헬기인 500MD와 AH-1S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신의 국산장비 개발을 통해 군 작전운용성능 층족은 물론 향후 해외수출시장 진입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무장헬기 개발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육군의 주력 공격헬기로 운용됐던 500MD TOW기와 일명 '코브라'로 불리는 AH-1S는 기체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로 작전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장착된 무기체계도 낙후되어 현대 전장에서 전투력 밸류 및 조종사 생존성 보장에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었다. 여기에 40년 이상 장기운용에 따른 부품단종, 정비소요 증가로 운용유지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더 이상의 운용이 어려워져 이를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우리 군은 공격헬기 운용개념을 High-Low Mix 개념(High-Low Mix 운용개념은 성능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장능력의 많고 적음으로 해석해야 한다)을 적용하여 High급은 AH-64 아파치 헬기급을 국외 도입하고, Low급은 1만 파운드급 무장헬기를 국내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0년 LAH 개발사업 추진이 승인되고, '11~12년 탐색개발을 거쳐 '15년 6월 체계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LAH는 공대지유도탄, 70미리 로켓, 20미리 터렛건 등의 무기를 장착해 표적획득지시장비(TADS) 및 사격통제시스템과 통합되고, 조종사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생존장비(RWR, MWR, LWR, CMDS 등)도 장착했다. 또 현대 정보전에 필수적인 데이터링크시스템을 탑재함으로써 소형이지만 최신 공격헬기가 갖추어야 할 모든 시스템을 구비하여 그 활용가치를 높였다.

현재 LAH사업은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시제기 최종조립단계에 있으며, 2022년 11월 말 체계개발을 완료한 뒤 군에 납품할 예정으로, 사업기간 총 90개월(7년 6개월) 중 약 40% 정도의 개발공정을 보이고 있다. LAH가 계획된 일정대로 개발이 완료되고 양산이 진행되면 2022년 12월부터 LAH가 우리 군의 각급 제대에 배치되어 Low급의 역량을 뛰어넘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또 한 번 도약 위한 밀가루

물론 우리에게 악점은 있다. 바로 진입장벽이 높은 민수헬기사업의 후발주자라는 점이다. 그러나 개발 초기부터 개발대상 품목의 민수헬기 적용을 위한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감항당국과 상호인증을 위한 협정체결 등 국내에서 인증 받은 구성품의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을 통해 마련한 국산 헬기 기술은 LAH/LCH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기계·전자·컴퓨터·소재기술의 집약체로 첨단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헬기체계 및 부품 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또 국제 민수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해 세계시장 진입도 곧 눈앞에 펼쳐질 것이며, 민군 겸용 기술 개발로 방위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이제 LAH/LCH 개발사업의 성공은 23조 원의 경제파급효과와 1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적인 헤자 산업으로서 우리회사가 2030년 매출 20조 원, 세계 5위의 항공우주 체계종합업체 도약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소요군 중심으로 국방획득제도 개선해

방위산업 육성에 부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
박진호 보좌관

참여정부 시절 잇단 방산비리로 노무현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 결과로 2006년 1월 오늘 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개청했다. 방사청 개청 이후 국방획득 분야에서 개선된 점도 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다. 가장 심각한 안타까움은 방사청이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제대로 견인하는데 여러 이유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우선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방산 시장은 매우 척박하다.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내 대기업들은 방위산업 참여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무기체계의 소비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영의 측면에서 볼 때 방위산업은 전략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산업분야이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사청이 직면하고 나아가 극복해야 할 한계를 살펴보자.

첫째, 방사청 개청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제대로 된 법률안조차 정부는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이를 공급할 국내 공급자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법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명확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방사청 개청의 취지인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는 국내 방산시장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둘째,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전투에 참여한 경험이 전무하지만, 북한의 비대칭전략인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단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는 다양한 첨단무기체계를 전력화시키고 있다.

방사청 획득인력의 전문성으로 군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사청은 해외제품 도입과 국내 개발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고민하고 이를 둘러싼 정책적 그리고 정치적 논의로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점이 번번이 지연되고 있다.

셋째,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의 복잡성과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은 국내방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규정하지만 사실상 규제 개선에는 매우 수동적이다. 일례로, 지체상금 부과와 부정당제재 처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국 기업과 달리 국내기업에 차등적인 자체상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자체상금이 기업의 해당 사업 순이익 보다 높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방사청과 계약을 체결한 체계업체가 하청업체의 부정행위까지 책임져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고 재판을 통해 구제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넷째, 국방부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이 일관적이지 못해 방산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두려워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위협을 억지





하고 필요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때마다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이 요동치는 일이 발생한다. 한편,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사적 현안 대응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대북전략을 제외하고는 지역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지역정세와 글로벌 차원의 국방전략 문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이 수정을 반복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다섯째, 무기체계 납품과 관련된 비리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 수요자인 군과 공급자인 기업의 유기적 소통과 협력이 방산비리의 온상이라는 국민적 시각이 있다.

과거 미국 국방부 인트라넷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효시가 된 상황과는 달리, 지금은 상용기술이 국방기술을 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군이 기업과 긴밀한 소통 없이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할 무기체계를 고안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기업은 군과 소통하지 않으면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소요를 사전 탐색하는데 제한된다. 즉, 국내방위산업 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유기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해 미래 수요를 예측한 선제적 노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위 다섯 가지 사례는 저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접 경험한 대표적인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한 걸림돌이다. 그렇다면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방부와 방사청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하나?

미국에서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개념을 처음 소개한 앤드류 마샬(Andrew Marshall)은 군사혁신을 위한 3대 전제요소로 △작전 개념(concept)의 변화, △조직(organization)의 변화, △역량(capability)의 변화를 꼽았다. 이 3대 요소 중 방위산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량'의 변화를 위해선 작전 개념과 조직의 변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3대 요소가 통합적으로 유지 및 관리되기 보다는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작전개념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주도하고, 조직의 변화는 국방부에서 주도하고, 역량의 변화는 각 군에서 주도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 3대 요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주변인에 불과하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여를 기대할 수 없고, 국군은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하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방사청에 추가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종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소요를 제기하고 최종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소요군 중심으로 국방획득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소요제기, 검증, 획득, 시험평가, 유지 및 관리 등 전반의 과정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병력 감축으로 인한 유지 및 관리는 전향적으로 민간기업에 이웃소싱하여야 할 것이다. 민군합동의 무기체계 유지 및 관리는 비용 절감, 민간 일자리 창출, 단종 부품 관리, 가동률 유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고의 억만장자, 하늘을 지배하다

영화 <에비에이터>의 주인공
하워드 휴즈의 항공스토리



천문학적인 재산을 보유한 부자에다 특유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미국인이라면 '하워드 휴즈'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영화계와 항공산업을 개척함으로써 지금의 미국이 있게 한 공로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2005년 영화 <에비에이터>의 주인공이기도 한 하워드 휴즈의 선 굵은 인생사를 돌아본다.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삶으로 한 시대 풍미

많은 사람들이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의 모델을 테슬라사의 CEO 일론 머스크로 알고 있지만, 원작자인 스텠 리는 아이언맨은 하워드 휴즈를 모델로 그렸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하워드 휴즈의 기업가적 역량이나 공학적 아이디어, 도전정신으로 따지자면 지금의 일론 머스크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워드 휴즈(Howard Hughes, 1905~1976)는 누구인가. 어떤 이들은 그를 일러 평생 돈이 마르지 않았던 거부, 결벽증과 기행을 일삼았던 인물, 수많은 여배우와의 스캔들 제조기라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그의 지업적인 모습만을 떼어낸 호사가들의 소재일 뿐이다. 물론 하워드 휴즈의 일생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였고 말년에는 평탄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어보려는 움직임이 많은 헐리우드 제작자들에 의해 시도됐지만 이내 무산되었고, 2005년 마침내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 의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에비에이터(The Aviator)>라는 영화로 탄생하게 됐다. 그리고 그 해, <에비에이터>는 아카데미 5개 부문을 수상했다.

비행기 공중전 다른 영화 제작해 관객 열광시켜

<에비에이터>는 휴즈가 감독을 맡은 <지옥의 천사들(Hell's Angels)>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휴즈는 이미 18살에 아버지가 세운 휴즈공구회사의 상속자가 됐고 1920년대 후반부터 영화산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미남인데다 매우 명석했고 평생 돈방석에 앉아 살았지만, 경영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산업에 관심이 많았고 도전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았다. 몇 편의 영화제작에 실패를 맛본 휴즈는 막대한 제작비를 쏟아 부어 1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두 비행사의 이야기를 다른 <지옥의 천사들>을 직접 만들었다. 관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주기 위해 스턴트맨 대신 직접 비행기에 올랐다가 불운한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며, 하늘을 누비는 비행기의 모습을 멋지게 촬영하기 위해 마음에 드는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6개월이나 기다리기도 했다. 비행기를 타본 사람도 많지 않은 시대에 하늘에서 수많은 비행기가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영화관에서 본 관객들은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액을 투자해 소규모로 수익을 얻는 안정적인 제작관행이 일반적이었던 헐리우드에서 위험부담을 떠안은 휴즈의 거대예산 방식의 영화는 흥행에 크게 성공하고 평단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이전까지 무성영화가 주류였던 영화계는 발성영화로 촬영한 <지옥의 천사들>로 인해 큰 전환점을 맞게 되고 휴즈의 주가

는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그는 돈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의 영화산업이 발전하기까지 검열과의 지독한 싸움을 벌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 또 1953년 '과학자의 연구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원칙하에 설립한 비영리 연구소인 '하워드 휴즈의학연구소(HHMI)'는 의사라면 누구나 알만한 미국 최대의 민간 의학연구소로 자리잡았다.

끊임없는 비행기에 대한 집념으로 항공산업 발전 기여

하워드 휴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행기에 대한 그의 무한한 사랑이다. 휴즈는 이미 15살 때부터 비행기를 몰 수 있었고, 평생을 비행기 마니아로 살았다. 1932년 휴즈 항공사를 설립한 그는 그의 천재적인 공학적 지식을 살려 경주용 비행기인 'H1 레이서'를 제작해 시험비행에 나섰으나 사탕수수밭에 불시착했고 신형 수상비행기 S-43을 운전하다 다시 호수에 불시착하기도 해 머리를 크게 다치기도 했다. 전쟁이 벌발하자 무기개발 계약을 따낸 그는 신형 고공정찰기 HK-1과 시제품 XF-11을 개발했다. XF-11을 직접 시험비행한 휴즈는 프로펠러 고장으로 추락, 많은 이들이 휴즈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정도로 위독한 상황에 처했고 의사들도 그의 회생 가능성에 고개를 저었다. 큰 난관을 겪고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평생 동안 사고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런 가운데 휴즈의 회사들은 나날이 팽창해가고 1940년대 말 지방의 작은 항공사인 TWA항공사를 인수해 팬암과 더불어 당대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키워냈다. 그는 끊임없이 최고 속도의 항공기에 집착했고 날개 길이만 100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XH-17 헬리콥터를 제작해 하늘로 띄워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그는 당시까지 비행속도 세계 신기록을 비롯해 두 번의 대륙횡단 비행기록, 세계일주 비행기록 등을 새롭게 써내려갔다.

그러나 하워드 휴즈는 평생을 강박증에 시달렸다. 사생활이 베일에 싸여 있었고 늘 FBI의 감시와 압박 속에 살아야 했다. 세균공포증과 강박증이 심해 악수는 물론 문손잡이도 맨손으로 만지지 않았고,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들의 회사를 성장시켜 나갔다. 그러나 휴즈는 1976년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멕시코 만 상공 위에서 죽음을 맞았다. 부검 결과 암물로 인한 심장 손상이라고 하나, 사망 20년 전부터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그의 죽음과 관련한 의문점은 지금도 논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를 풍미한 걸출한 삶을 산 사람, 혹은 천재로 일컬어지는 하워드 휴즈는 세계 항공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 MRO사업의 중심 'KAEMS'가 이룩하다

국내 MRO사업 이끌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 설립 현판 제막식

국내 최초 항공정비(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가 지난달 현판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항공운송기업 관련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현판식 현장과 함께 조연기 대표이사/사장의 KAEMS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KAI 및 주주사, 협력사 등 참석해 테이프 커팅 및 현판 제막

올 7월 말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 Korea Aviation Engineering & Maintenance Service, Ltd, 이하 KAEMS)의 법인 설립에 이어 지난 9월 12일 설립 현판 제막식이 KAEMS 본사(구. KAI 제2사업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공항공사를 비

롯, BNK그룹,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주주사 내
빈과 협력사 및 사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AEMS의 힘찬 발걸음을 축하했다.

제막식에 앞서 KAEMS 조연기 대표이사/사장의 기
념사와 우리회사 김조원 사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앞으로 KAEMS의 본사로 운영될 옛 2사업장 정문
에서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제막
식 후에 민수 및 군수 관련 생산현장으로 이동, 현
장투어를 실시했다.

이로써 KAEMS는 대한민국 대표 MRO전문업체로
서 LCC(저비용항공사) 중심의 기체 정비를 시작해
국내 대형항공사, 외국 항공사 등으로 정비물량을
확대하고, 활발한 MRO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INTERVIEW

“군·민수를 통합하는 국내 최고 MRO 전문업체로 도약할 터”

Q. KAMES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2015년 KAI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면서 미래 신
성장동력사업을 구상한 끝에 MRO사업을 추진했
다. 항공기 수명주기로 따져보면 후속지원이 차지
하는 비율이 60%를 차지하고 민수항공기 시장이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어 사업의 부가가
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
침 국토부에서 2015년 MRO전문사업자 선정을 추
진하고 있었고 사업을 수행하기에 높은 경험치를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KAI가 5년간의 준비 끝
에 선정됐다.



까지 참여해 명실공히 군수와 민수를 통합하는 국
내 최대의 MRO 전문업체로 발돋움할 것이다.

Q. KAEMS 설립의 중요한 의미는?

KAI가 정부로부터 MRO 전문업체 선정이라는 결
실을 맺었다는 것이 우선 큰 의미다. 더욱이 항공공
항공사가 2대 주주로 참여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
한 정부의 육성의지를 반영한 것은 고무적이다. 우
리는 2사업장을 제공하는 협력사를 포함, 총 자
본금 1,350억 원 중 약 66.4%의 지분을 가지고 있
으며 20%의 지분을 공항공사가, 10%는 BNK그룹
이 참여했다. 여기에 대표적인 LCC업체인 제주항
공과 이스타항공과 같은 잠재고객이 출자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Q. 앞으로 KAEMS의 역할과 사업 성공을 위 해 갖추어야 할 외부요건은?

국내 LCC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KAEMS가 업무적인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 구심점
이 되는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재구매 같은
업무를 통합·관리해 운영하면 각 업체들의 운영비
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처럼 KAEMS가
LCC업체를 비롯한 대한민국 항공운송·운항업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이를 대변하는 중계역할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아울
러 KAEMS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서
나 정부가 제시했던 육성방안대로 사업이 추진되
어야 함은 필수 요건이다. 항공산업은 최소 10년 이
상 바라봐야 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정부나 지자
체가 상황에 따라 정책이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일
관성 있고 지속적인 사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MRO
사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Q. 구상하고 있는 KAEMS의 사업방향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업이 MRO사업인 만
큼 지금 당장 민수로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초기
에는 현 물량의 70%를 KAI가 수행하고 있는 군수
창정비 분야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KAI나 협력
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자재 부문이나 유해화학
물질의 공급을 책임지는 사업을 병행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적자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체질을
만든 후에 본격적으로 민수 쪽 사업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향후에는 LRU 같은 고가의 핵심파트 정비

KAEMS
조연기 대표이사/사장

DX KOREA



2018

국내 유일 체계종합업체의 위상을 선보이다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전 'DX Korea 2018' 참가

우리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DX Korea)'에 우리회사가 참가해 첨단 기술력을 선보였다. 군 관계자 및 국내외 방산 바이어들의 이목을 끈 우리회사만의 무기체계와 현장의 분위기를 만나보자.

한 무장헬기의 기능을 갖춰 탁월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2026년까지 개발예정인 우리회사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도 최근 최종 확정된 형상을 이번 전시회에 공개함으로써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교체할 미래 무기체계로 한껏 기대를 모았다.

해외 군 관련 VIP들과 활발한 비즈니스 펼쳐

이번 DX Korea 2018은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방산 협력과 수출을 위한 활발한 방산비즈니스 장으로 기획, 약 8개국 참모총장, 22개국 군 고위관계자를 비롯해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방산바이어(86개국 126개 무역관) 및 국방부, 육군본부, 방사청 획득관계자들이 초청돼 비즈매칭을 확대시켰다. 이번 전시기간 중 우리회사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

라크, 보츠와나 등 해외 VIP인사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국산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방산 수출 확대도 타진했다. 또한 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등 국내 고객들과도 만나 사업 협안을 공유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협의하는 등의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 외에도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해 산·학·연·군 간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국제학술회의 및 세미나도 개최돼 군 전력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논의도 펼쳐졌다.

이번 전시회 참가와 관련, 우리회사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아이템인 무인기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항공기 전시를 통해 국내 유일의 체계종합업체로서의 위상은 물론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대의 방산교류 플랫폼으로 도약

우리회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efense Expo Korea, 이하 DX Korea) 2018'에 다양한 무기체계를 선보여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활발한 방산 비즈니스를 펼쳤다.

DX Korea 2018은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주관 하에 진행됐으며 국내외 30개국 250여 업체가 참여해 1,200여 부스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상 무기 전문전시회로 마련됐다. 특히 전시 면적이 아시아 최대 규모인 총 10만1천233㎡로, 첫 행사가 열린 2014년보다 8배 가량 확대됐다.

이번 전시회는 지상무기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군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목적과 함께, 국내외 업체 간 기술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 여건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아시아 최대의 방산교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번 DX Korea 2018에 우리회사는 국내 최대 항공방산업체에 걸맞은 우수한 무기체계를 전시하고, 고객과의 1대1 맞춤상담을 통해 방산 수출의 기회를 창출하는 장을 펼쳤다.

무인기·LAH·KF-X 등 첨단 무기체계 총 출동

이번 DX Korea 2018에는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회사의 제품들을 전시해 국내 유일의 체계종합업체로서의 위상을 홍보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회사가 최근 개발한 독자적인 무인기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중 실물로 전시된 다목적 수직이착륙 무인기인 NI-600VT(Night Intruder-600 Vertical Take off & Landing)는 헬기형 정찰무인기로, 활주로가 필요 없고 광학적외선센서(EO/IR)와 정밀레이더(SAR) 등 임무장비 탑재능력이 우수해 소요군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무인기 통제기능을 전투기에 추가한 유·무인 복합운용 시스템도 전시에 참여했다. 기존 유인 전투체계에 무인기에서 획득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관찰영역이 더욱 확대됐으며, 미래 전장에서의 생활성을 극대화시킬 시스템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형무장공격헬기인 LAH(Light Armed Helicopter)도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았다. LAH는 육군의 노후한 주력공격헬기인 500MD와 AH-1S를 대체하기 위해 우리회사에서 개발한 미래 육군의 주력 무장헬기다. 공대지 미사일 천검과 70mm 로켓포, 20mm 터렛건이 장착된 LAH는 소형이지만 강력



고마운 가족에게 우리회사를 소개합니다!

2018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부모님 초청행사

날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회사 각 사업영역에서 빛을 발할 새로운 인재들이 하반기 신입사원 교육을 마쳤다. 앞으로 KAI의 위상을 알려나갈 새내기 사원의 올바른 조직생활 적응을 위해 초청 행사를 가졌다.

회사의 위상과 비전, 현장을 부모님에게 선봬

아들 딸들의 신명나는 공연에 박수 갈채

조용한 토요일 오전, 우리회사 일원에서는 신입사원 부모님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지난 9월 8일 웰빙홀에서는 신입사원 부모님과 가족 233명을 대거 초청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신입사원 부모님 초청행사를 마련했다. 김조원 사장을 비롯해 임원 및 신입사원 1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 앞서 신입사원들은 부모님과 함께 에비에이션센터 전시장을 관람하고 오전 11시 웰빙홀에 입장했다.

김조원 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회사의 성장과정과 위상, 비전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한 부모님들은 신입사원들의 율동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이 신명나게 펼쳐지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후 마련된 오찬에서는 김조원 사장과 부모님 대표의 건배 제의와 선물 증정식이 이어졌으며, 식사 후 셔틀 버스에 올라 항공기동과 조립동 현장 투어를 실시, 우리회사의 주요시설과 생산품을 둘러보고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우리회사는 앞으로도 꾸준히 부모님 초청행사를 마련하여 자녀들에 대한 자긍심을 선물하고,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에게는 애사심을 심어주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아들 딸, 손자에게 전하는 한마디

소은아!
네가 너무
자랑스럽단다!

동반성장팀
전소은 신입사원의 어머니
박인덕

소은아! KAI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해! 그동안 입사 준비 있다고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엄마로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결실을 맺은 것을 보니 너무 행복하고 네가 자랑스럽단다. 우리 딸 화이팅!



**KAI의 충실한
자양분으로
성장하길**

고정익운영기술팀
배재성 신입사원의 아버지
배영호



아들! 이번 신입사원 공채에 당당히 합격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일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세계 유수한 항공 회사로 거듭나는데 충실한 자양분으로서 열심히 임해주길 바란다.

**훌륭하고
모범적인
직원이 되길**

관용헬기사업관리팀
정은기 신입사원의 할머니
조준남



우리손자! 너무 착하게 성장해 이렇게 좋은 회사에 와서 근무하게 돼서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초대해줘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 은기, 훌륭하고 모범적인 직원이 되길 할머니는 믿는다. 다시 한번 KAI에 감사합니다.

묵묵하되 주체적으로,

우직하되 능동적으로

8월의 'KAI People' 3인

우리회사는 매월 KAI인의 핵심가치 실천과 조직문화 활성화 등 모범적인 활동으로 동료들의 귀감이 되는 구성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KAI People'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동료들이 추천한 후보 중 선정된 3인을 만나보자.

항공기 최종 조립의 서포터즈

항공기자재
박경석 조장

우리회사 항공기동의 최종 조립에 소요되는 LRU, 반제품, H/W, 위성자재 등 모든 자재를 총괄 지원하는 항공기자재 박경석 조장은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공정에 차질 없는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고가의 항공기 LRU 항전장비 및 대형 엔진 등의 현장 지원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전산 재고와 현물 재고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창고의 정리정돈과 재고실사 등을 통해 관련 팀과 업무 협조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박 조장은 최근 공정 중에 발생한 QAR 후속조치로, 보관하고 있는 HOLD AREA의 현황을 정리하고 미해결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결함품들은 해당 바이어와 협의해 원만하게 처리하는 업무로 조직 간 소통과 화합의 메신저가 되고 있다.

박경석 조장은 "매번 KAI people에 선정되는 분을 보다가 막상 제가 선정되니 쑥스럽기까지 했는데 솔직히 기분은 좋다"며 "이렇게 공개적인 칭찬을 받고 나니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매사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해 협조하는 자세로 업무를 해야겠다"며 다짐했다.

인간미 넘치는 숨은 협력자

고정익고객지원팀
김성호 차장

태국 공군 Wing4 기지사무소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는 고정익고객지원팀 김성호 차장은 지난 8월 태국 현지로 떠난 우리회사의 해외봉사 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다른 봉사활동과 달리 해외봉사활동은 쟁여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현지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준비물이나 언어적인 소통

문제가 관건이었다. 김성호 차장은 봉사단의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현지에서 구입해야 할 물품이나 간식, 식사준비, 기증식 행사준비를 위해 태국 현지 공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적인 해외봉사활동을 마무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차장은 본인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틈틈이 현지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봉사단 측 담당자와 수시로 화상통화를 이용해 원하는 물품을 완벽하게 구입해 주었고, 밤늦은 시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한 물품 구입리스트를 메일로 주고받는 등 차질 없는 봉사활동을 위해 배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성호 차장은 "휴가를 반납하고 머나 먼 태국까지 봉사활동하러 오신 직원 및 가족 분들이 진정한 KAI People"이라며 "짧은 시간이나 마 마음이 따뜻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오히려 행복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기업 가치 높이는 국산화 선두주자

구조사험팀
최명호 책임연구원

T-50/FA-50 계열은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여러 부품들은 국외에서 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사험팀 최명호 책임은 정부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해 부품국산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본성형 공정을 이용한 수직미

이조립체, Ti초소성 가공을 통한 노즐페어링 조립체, VOR/ILS/Glide Slope 안테나가 내장된 노즈콘 조립체를 개발해 향후 KF-X 사업에서도 활용할 전망이다.

최 책임이 수행하는 과제는 주관업체, 용역업체, 참여업체 등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명호 책임은 기관이나 학교, 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명확한 기술적 판단을 내려 높은 신뢰를 얻고 있고, 후배라 할지라도 스스럼없이 질문하고 배우는 자세로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비행 데모시 험을 위해 감항업무 및 비행시험팀과의 협업으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최 책임은 소감을 통해 "추천해 주신 최광식 선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지난 비행시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진희 선임을 비롯해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줘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공을 돌렸다.

AUGUST



KAI PEOPLE



문어도 잡고 농어도 잡아본 신나는 생애 첫 어부체험

사업기획팀 민병석 부장 가족의 남해 원천마을에서의 어부체험

남자라면 한번쯤 한적한 어촌에 살면서 바다에 배를 띄워 유유자적하게 고기나 잡으며 살아볼까 하는 로망을 상상해 본 적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다와 싸우며 살아가는 현실 속 어부의 삶은 어떨까. 사업기획팀 민병석 부장 가족은 어부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 남해 바다의 작은 배 위에 올랐다.



가족들은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힘든 내색 하나 없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해가 떨어지는 줄도
모른 채
낚시 삼매경에
빠졌다.

서울에서 달려온 아내와 두 딸과의 상봉
날씨도 오락가락한데다, 멀리 서울에서 내려온 사업기획팀 민병석 부장의 아내 김희종 씨와 예쁜 두 딸이 몇 시간 동안 작은 어선에서 난생처음 어부 체험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부터 앞섰다. 그러나 웬걸, 3시간을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과 엄마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호기심 가득한 신나는 체험이 될 줄은 몰랐다.

오늘 체험을 시작할 곳은 경남 남해군의 앵강만 언저리에 위치한 원천마을. 이 작은 마을에서 펜션과 어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우 선장 부부의 그레이스 호에 민병석 부장 가족 4명이 승선했다. 9살 지우와 6살 서빈이는 서울에서 이곳으로 내려오는 동안 연신 ‘문어! 문어!’를 노래하면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고 했다. 전날 사천의 아빠 숙소에서 잠을 자고 곧바로 남해로 달려온 가족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배에 몸을 싣고 선장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지우와 서빈이는 선착장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절지동물인

갯강구들을 보고 아빠 뒤로 숨금숨금 숨는다. 다소 징그러운 모양새라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벌써부터 주눅이 들면 어부체험을 하는데 난관에 부딪치지 않을까 살짝 우려스러웠다.

오늘 체험은 며칠 전 김상우 선장이 바다 속에 넣어 두었던 통발들을 꺼내 그 속에 잡힌 것들을 꺼내고 다시 통발을 바다 속에 넣는 작업을 한 뒤에 낚시체험을 하기로 했다. 잡은 해산물로는 선상에서 라면도 끓여먹고 회도 시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오전에 비가 그쳤지만 바다는 여전히 변덕을 부리고 있다. 배를 몰아 통발을 놓은 앵강만 어귀로 나갈 즈음, 바람은 선선했지만 심상치 않은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통발에서 나온 팔뚝만 한 농어에
모두 환호성**
“통발에서 잡은 것을 꺼낼 때 유의할 것은 손가락을 쏘는 빨간 독물고기가 있으니 그건 집게로 바다

에 버리시면 되고요. 새끼고기들도 방생해야 합니다. 문어와 게가 나오면 분리해서 놔두어야 해요. 문어가 게를 잡아먹기 때문이죠. 불가사리나 성게는 따로 모아놓고 나중에 죽여야 합니다.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해로운 동물이거든요.”

통발에서 잡은 것들을 꺼낼 때는 함부로 손을 사용하지 말고 살살 털어내는 방법을 김 선장으로부터 들은 뒤, 양방기를 이용해 하나씩 통발이 모습을 드러내자 본격적인 어부체험이 시작됐다. 첫 통발을 꺼내니 문어가 나타났다. 출발이 좋았다. 전체적으로 빈 통발도 많았지만 문어와 주치, 돌게, 소라, 용치놀래미 등 다양한 어종을 어획했다. 특히 문어는 족히 서른 마리는 잡은듯하다. 출복이나 참돔 치어, 불락 치어 같은 것들은 지우와 서빈이가 '잘 가라며 바다로 놓아주고 선장님의 밀대로 해로운 생물은 따로 분류했다. 잡은 것들은 모두 가족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는 통발을 건져 올려 신나게 털어내는 작업을 했다. 김 선장은 이건 배도리치, 이건 한 치이며 잡히는 것마다 하나하나 이름을 말해준다. 통발을 반 정도 털어냈을까. 묵직한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 있어 살펴보니, 팔뚝만한 능어 한 마리가 들어 있다. 오늘 잡은 것들 중 가장 횡재라고 하니 모두 환호성이 일어났다. 펜션으로 돌아가 회를 떠서 먹을 기대가 피어오른다. 아이들은 선착장에서 갯강구 만난 것도 잊고 문어를 직접 손으로 잡아보고, 작은 새끼 물고기들을 만져본다. 아빠와 엄마는 그런 아이들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모습에 내심 놀란다.

만 볼 수 있도록 송당송당 회로 썰어 장만했다. 문어를 처음 맛본다는 아이들과 달달하고 부드러운 갓 잡은 회 맛에 폭 빠진 아빠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했지만, 오늘 체험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통발작업을 마쳤다. 낚시를 즐기기 위해 배는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였던 노도로 방향을 틀었다.

대어를 잡기 위한 가족들의 낚시 삼매경

“지금부터 두 가지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손줄 낚시와 대줄 낚시입니다. 작은 물고기 낚기에 맞는 16호 또는 20호 추를 낚시에 쓸거고요. 추와 실은 ‘겹망매듭’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김상우 선장은 가족들에게 매듭짓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미끼를 끼우기 위해 지렁이가 든 작은 종이상자를 열자, 아이들이 징그럽다며 비명을 지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지우와 서빈이는 지렁이를 잡고 자연스럽게 들어올리기 시작한다. 미끼를 세 군데 끼운 세줄 낚시와 낚싯대를 바다 속에 드리우자, 이내 입질이 왔다. 아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낚시 초보자였지만 김 선장이 일러준 요령대로 낚싯줄을 탁탁 채니 엄마 낚싯줄에 예쁜 보리별이 올라온다. 조류가 조금 세져 물의 흐름이 잔잔한 곳으로 위치를 바꾸어 해가 떨어지는 줄도 모른 채 낚시 삼매경에 빠졌다. 마침 수면 아래에 반짝이는 은빛 갈치가 보이자 엄마는 문어와 돌게를 넣은 맛있는 라면이 나오는 줄 모르고 낚싯대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특히 유명한 문어라면은 쫄깃한 문어와 얼큰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다. 잡은 물고기는 맛 만 볼 수 있도록 송당송당 회로 썰어 장만했다. 문어를 처음 맛본다는 아이들과 달달하고 부드러운 갓 잡은 회 맛에 폭 빠진 아빠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묵직한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 있어 살펴보니,

팔뚝만 한 농어
한 마리가 들어 있다.

오늘 잡은 것들 중
가장 횡재라고 하니
환호성이 일어났다.



마침 수면 아래에
반짝이는
은빛 갈치가 보이자

엄마는
낚싯대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TIP. 환경부 생태관광지정 남해 앵강만 어부체험으로 힐링과 추억을 함께!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 앵강만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벗 삼아 아내가 운영하는 펜션과 함께 어부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그레이스 호 김상우 선장은 원양어선을 탄다. 2000년 고향으로 내려와 남해 어부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3급 항해사, 수상인명구조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김 선장은 문어, 해삼, 털개, 돌개, 봉장어, 불락, 소라 등을 잡는 계절별 어부체험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체험 내용으로는 통발과 자망, 생활낚시를 비롯해 어획 한 수산물을 이용해 문어라면, 털개찜, 자연산 회를 시식하는 시간도 마련해 청정한 남해바다에서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고 있다.

체험비 숙박+어부체험 시
체험비 10% 할인
KAI 직원은 추가 10% 할인
승선인원 성인기준 7명
(초등생 이하는 2인 1인 계산)
문의 그레이스 호 김상우 선장
(010-3322-8975)



의 시간이 행복하기 그지없다. 만선(?)의 기쁨을 싣고 해가 훌쩍 진 뒤에 물으로 귀향한 일행은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만찬 시간을 가질 것이다.

아이들의 생기 있는 모습에 행복한 하루 보내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통발 꺼낼 때도 신기했고 낚시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어부체험이 재미있었다고 자랑이다. 처음의 걱정과 달리 멀미 한 번 하지 않고 배 구석구석을 다니며 고기 잡는 재미에 끝 빠진 하루였다. 국내에서 해본 바다 체험이라고는 갯벌체험이 전부인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왔다. 괜에 놀라갔다가 잠깐 낚시체험을 해보긴 했지만 열대어들이 미끼만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실망했던 기억을 오늘 경험한 ‘손맛’으로 모두 날려버렸다. 엄마 아빠도 놀랄 만큼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문어랑 지렁이를 주물럭거리는 모습은 오래오래 추억할 가족만의 이야기거리가 됐다.

“아빠로서 점수는 백점 만점에 천점이에요. 지우와 서빈이랑 평소에도 잘 놀아주고 아이들도 아빠를 너무 잘 따라요. 일요일 아침에 다시 회사로 간다고 하면 애들이 가지 말라고 껴이꺼이 울음을 터뜨릴 정도예요”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했던 민병석 부장은 올 1월 사

천본사로 발령받아 본의 아니게 주말부부가 됐지만, 이번 체험을 위해 아빠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엄마가 손수 운전하는 5시간 동안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다. 특히 지우는 아빠가 좋아하는 야구도 같이 하며 같이 놀 정도로 딱 아빠 취향을 닮았다. 아빠와 엄마는 이런 아이들이 지금처럼만 순수하게 잘 자라줬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결혼 10년을 맞은 민병석 부장과 아내인 김희종 씨는 나이 차가 10살 차이가 있지만,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김희종 씨의 친구이자 민병석 부장의 직장 후배가 둘을 소개시켜줬지만 미지근한 첫 만남 이후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친구는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면 김희종 씨를 불렀고, 그 자리에 민 부장이 다시 나타난 것. 물론 민 부장은 아내가 나을 것을 알고 있었다. 친구는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리고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고 한다. 다시 만난 둘은 10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멋지게 결혼에 골인하게 된 것. 그래서 사람은 몇 번은 만나봐야 진정을 알 수 있다고 하나 보다. 비록 지금은 결혼 이후 처음으로 가족이 떨어져 지내지만, 언젠가 함께 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어부체험을 통해 가족이 힘을 모아 고기를 낚고 오손도 손 나누어 먹은 오늘을 기억하면서, 가족의 유대는 다시 한 번 끈끈해졌다.



꽃의 매력에 흠뻑 빠진 당신은 '꽃보다 남자!'

어떤 이에게 아름다운 꽃을 선물하는 행위는 그 순간만큼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회사 기체생산2팀의 로맨틱한 남자들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줄 꽃다발을 직접 만들어보기 위해 모였다. 평소엔 '상남자'들이지만 오늘만은 꽃 송이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자신만의 느낌으로 만들어간 '꽃남자'들을 만나보자.

받는 이에게 행복을 선물한 꽃다발 만들기 도전
굳이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사랑하는 이에게 문득 꽃을 선물하고 싶은 날이 있다. 꽃을 통해 상대방이 행복해 하는 얼굴을 보여준다면, 주는 사람의 마음도 더없이 기쁘다. 누군가를 향한 한결같은 나의 마음을 이처럼 한 떨기 꽃으로라도 표현한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충분히 감동스러운 순간이 된다. 우리회사 기체생산2팀 5명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감동의 주인공이 되고자 9월의 어느날, 꽃 내음이 은은한 시내 플라워숍에서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만들기로 했다.

장정환 전임, 김정훈 주임, 이준희·박창준·김도윤 기술원 등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인 이곳은 사천읍 수석리에 위치한 '오늘도, 봄'이라는 플라워숍이다. 꽃다발 만들기는 이곳을 운영하는 김미은 플로리스트의 강의로 진행됐다. 그저 꽃을 구입해 서툰 솜씨로 꽃다발을 만들기보다 전문가의 가이드 하에 좀 더 의미 있고 제대로 된 꽃다발을 만들고 싶어서다. 오늘은 장미 종류를 소재로 예쁘고 화사한 꽃다발을 만들어볼 작정이다. 참가자 모두 꽃다발 만들기에는 첫 도전했지만, 받을 사람의 기뻐하는 얼굴을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 요량이다.



모양이 무너지지 않는 지그재그 다발 형태가 비법

오늘 꽃다발 만들기에 사용될 재료인 장미들은 모두 네 종류다. 붉은 빛을 띤 버틀검장미, 연핑크빛의 부르트장미, 핫핑크가 매력적인 올포리브장미, 백장미 계열의 마루시아장미로 모두 생소한 이름의 꽃들이지만 무언가 로맨틱한 느낌을 자아낸다. 강렬한 색감을 지닌 새빨간 장미보다, 서로 조금씩 다른 은은한 톤의 장미들이 훨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듯하다. 여기에 장미와 잘 어울리는 부재료인 유칼립투스를 준비했다. 주재료인 장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건조시켜도 예쁘게 마르는 유칼립투스는 향기도 좋고 비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줄기에 힘이 있어 초보자들이 다루기 쉬운 부재료다. 이렇게 준비한 꽃다발 재료를 앞에 두고 플로리스트의 설명이 시작된다.

“꽃다발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소재 중에서 가장 꽃가지가 튼튼하고 큰 꽃을 먼저 선택해서 그 꽃을 중심으로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꽃다발이라고 해서 그저 1자 형태의 묶음으로 채워서 묶으면 흐트러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준비한 장미들 중 1명 당 15송이와 함께 유칼립투스로 하나의 꽃다발을 꾸며보기로 했다. 그런

데 유념해야 할 것은 꽃다발을 만들 때 반드시 지그재그 형태로 꽂을 모아야 한다는 것. 머리인 꽃송이 부분은 왼쪽으로 향하고 줄기는 오른쪽으로 향하는 방식으로 모아야 한다. 하나씩 둘씩 모아놓은 장미 더미의 허리 부분은 염지와 검지, 중지로 잡고 있으면 꽃다발이 마치 가운데가 잘록한 모래시계 모양이 된다. 그래야만 묶을 때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다.

김미은 플로리스트가 준비한 장미들로 자신의 느낌을 담아 척척 구성해나가는 시범을 보니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발을 만들기 위해 각자 마음에 드는 장미로 하나둘 모으다 보니 손가락에 힘이 빠지고 처음 의도한 꽃다발의 모양이 흐트러진다. 때마침 플로리스트가 팀원들이 성심성의껏 모아놓은 꽃다발 하나하나에 세심한 손길로 장미와 유칼립투스의 위치를 정리해 잡아주니 참가자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쏟아진다. 역시 프로의 손길은 다른 법이다.

포장단계는 종이로 예쁜 주름 만들어 ‘화룡점정’

“같은 종류의 장미라도 장미의 얼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 가장 예쁜 얼굴을 가진 장미를 메인 색감으로 골라 가운데 놓고, 다른 장미들은 높낮이를

조절해주면 답답해 보이지 않고, 요즘 트렌드인 내츄럴한 꽃다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자신의 개성을 맞게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 플로리스트의 말대로 꽃다발 이란 정해진 형태가 없어 똑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른 모양의 꽃다발이 모습을 드러낸다. 참가자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예쁜 꽃다발이 됐다’며 흡족해 하는가 하면 어떤 참가자는 ‘나는 어쩐지 섬세함과 거리가 멀다’며 꽃다발을 풀었다 모았다를 반복하기도 한다. 그러는 도중 각자의 작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칭찬도 하는 등 서로 화기애애해졌다. 장정 5명이 한 자리에 모이면 남성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길 것 같지만 오늘은 꽃으로 인해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포근한 미소가 절로 나온다.

이제 부직포와 색이 들어간 종이를 사용해 포장을 할 차례다. 먼저 부직포로 꽃다발을 싼 뒤에 꽃과 질 어울리는 색감의 종이로 포장을 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지만 수월하지 않은 작업이다. 꽃다발의 전체 모양에 따라 포장법도 다르다. 포장을 하면서 예쁜 종이 주름도 만들어야 하니 현장에서 선 굵은 작업을 해온 성인 남자의 손으로 미적 감각을 살리기가 쉽지 않았다.



TIP 선물 받은 꽃다발을 오래 보관하려면?

특별한 사람에게 선물 받은 꽃다발은 오래 간직하고픈 마음에 잘못된 상식으로 허투루 취급하면 곤란하다.
꽃이 시들지 않고 되도록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꽃은 받자마자 되도록 빨리 물에 넣되, 하루에 한번 물을 갈아줘야 한다. 이때 줄기는 끝부분을 비스듬히 자른다.

꽃을 더 생기 있게 하려면, 물 속에 탄산 사이다나 쌀뜨물, 사과식초, 베이킹소다 등을 넣으면 살균작용을 도와준다.

잎사귀는 물에 닿으면 썩게 되므로 물에 닿는 잎은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다.

꽃은 화분의 상태에서는 헛빛을 쪼여주는 것이 좋지만, 물에 담은 꽃은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연인과 가족에게

설렘주의보를 유발하는 아이템

플로리스트의 지도로 서툰 솜씨지만 만족할만한 포장을 마무리하고 참가자들은 뿌듯한 마음에 이리저리 자신의 꽃다발을 감상한다. 오늘 만든 꽃다발은 자연스러운 유럽풍의 ‘프렌チ스타일’ 꽃다발이라고 한다. 참가자들은 누군가에게 선물할 생각에 벌써 행복감에 빠졌다. 박창준 기술원은 10월 28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예비 신부에게 직접 만든 꽃으로 멋진 프로포즈를 할 참이다. 박 기술원과 함께 참여한 김도윤 기술원도 다가올 고향 어머니의 생신 때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꽃다발을 선물로 드릴 계획이다. 아직 신혼이라는 김정훈 주임도 오늘 아내 몰래 꽃다발을 만들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준희 기술원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선배인 장

정환 전임의 결혼기념일 선물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꽃다발 만들기 공모에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자신도 최근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려고 심혈을 기울여 도전에 임했다. 이번 참가자들은 연령대가 제각각이지만 평소 형제처럼 절친한 관계였다. 그러나 3교대 근무라는 업무 특성상 조화식 말고는 함께 모여 무엇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차에,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더욱 돋독한 사이가 된 것 같다. 이제 이들은 오늘 만든 꽃다발을 선물함으로써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꽃은 사랑을 전하는 도구라기보다 사랑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닐까. 오늘 플라워숍에 모인 참가자들도 동료와 가족, 연인에게 늘 사랑받는 우리회사의 구성원이 되길.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71배

가깝고도 먼 유럽, 러시아 여행기

내가 러시아에 잠시 거주하며 친구들에게 매일같이 들었던 말은 “거긴 보드카 매일 마셔?”, “동양인에게 위험하지 않아?”, “그렇게 춥다며?” 등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해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독한 추위와 보드카만으로 그 이미지를 압축시키기엔 너무 거대한 국가이고, 각 도시마다 다양한 매력을 지녔기에, 이번 여행기를 빌려 잠깐 소개해볼까 한다.

글/그림. KUH사업관리팀 공연종 사원



일년 중 8개월 이상이 한겨울인 ‘눈의 나라’

한겨울 혹한의 추위를 자랑하는 러시아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16도, 대체적으로 추운 것은 맞지만 이 역시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관광객들이 여행지로 많이 선택하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나마 러시아 내에서도 센트럴 지역으로 분류되어 사람이 살만한 기후라고 평가 받는 지역이다. 센트럴 지역은 보통 여름이라 불리는 7~8월 1~2주 정도만 한국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다가 금세 기온이 내려간다. 또한 이때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현상이 시작되어 관광에 최적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밝음으로 인해 매일매일 파티가 펼쳐진다.

하지만 그도 잠시, 8월 중순과 말 사이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그 맹렬한 추위는 한겨울 체감온도 영하 30도 이상을 고수하며 4월까지 이어진다. 처음엔 생전 겪어보지 못한 수치(?)인 저기 전까진 금방 와닿지 않는 기온이었다. 그러나 도착 직후 건물 지붕 끝에서 땅을 향해 날카롭게 매달린 평균 1m 길이의 고드름을 보니 바로 느낌이 왔다. 이곳이 센트럴 지역(지리적으로는 서쪽)이니 망정이지, 시베리아 지역은 한겨울 최저 영하 52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경이 저절로 깨지는 에피소드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모피코트는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으로 분류된다.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는 아시아지역과 기후가 흡사하여 진정한 러시아를 느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현지 느낌 물씬 나는 러시아 여행코드, 비행기와 기차

항공권 예매 시 국적기나 국내 항공사를 이용하면 더 편안한 여행길이 되겠지만, 출발부터 현지 느낌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러시아 항공사 아에로플로트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아에로플로트의 기내식은 전통 러시아식 조리방법으로 유명해서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강한 향신료와 ‘흑빵’이라 불리는 신맛 나는 빵은 그 냄새만으로 여행객들이 흥미로워하거나, 힘들어한다.

한편, 러시아 여행의 진수는 그 어떤 나라보다 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줄 기차여행에서 느낄 수 있다. 전 세계 국토 면적 1위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 국가와 국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러시아 도시를 촘촘히 이어주는 기차가 잘 발전되어 있기 때문. 특히 시베리아횡단열차(TSR)는 쉬지 않고 달려도 시작 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7일이 걸리는 대장정이기에 상당한 모험심을 요하는 이색 테마여행인 셈이다. 러시아 내 거의 모든 열차는 기본 7시간 이상 달리고 20시간 이상의 장거리 노선이 많아, 침대가 있는 객실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중 ‘쿠페(밀폐형 객실)’의 최고급 칸을 이용하면 옛 러시아제국 시절 귀족의 정취를 느끼며 여행을 즐길 수 있으니 참고하자. (불신검사에 대비하여 입국 시 받은 서류(레게스뜨리찌야)와 여권 구비는 필수! 티켓을 훼손하거나 수정하는 일 또한 절대 금물!)

러시아의 중심, 대표 관광도시 모스크바

모스크바로 간 뒤 가장 먼저 붉은 광장과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았다(크렘린궁전 주변은 푸틴이 움직일 때마다 수시로 교통이 통제될 수 있으니 이 점 미리 참고해 두자). 붉은 광장에 들어가 성 바실리 성당 앞에서 기념사진은 꼭 남기는 것이 좋지만, 대표적인 포토존답게 촬영 줄이 매우 길 때가 많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이면서 인터넷으로 러시아를 검색했을 때 대표 사진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는 관광지를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이중 유명한 관광지는 단연 러시아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크렘린 궁전(크레믈)’과 그 성벽 아래 펼쳐진 ‘붉은 광장’일 터. 동글동글한 소프트아이스크림을 연상케 하는 지붕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크렘린궁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을 차용했다. 또한 고전게임 테트리스 초기화면의 모티프가 된 ‘성 바실리 성당’도 있고 유명 백화점 ‘굼’도 모여 있다.

붉은 광장과 굽 백화점 사이에는 작은 추모공원이 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의 안팎에서 스러져간 영웅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러시아의 다른 도심지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공원은 견고하고 육중한 시설 안에서 그 어떤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불’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군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진 촬영 시 너무 튀는 동작은 삼가는 것이 좋다. 추모공원의 기본적인 성격과 분위기만 이해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끔 가볍게 행동하여 군인에게 경고를 받는 관광객들도 더러 보인다.

현지느낌 충만하게 즐길 수 있는 Tip

- Bar에서는 상트의 특산 보드카 짜르스까야와 칵테일 '모스크 물'을 마셔보자. 특히 짜르스까야 골드라벨은 금가루가 들어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모스크 물은 예전 미국에서 보드카를 수입하기 어려울 당시 싸구려 불법 제조 보드카로 만들던 것에서 유래한 칵테일로 꼭 현지에서 맛보길 추천한다.
- 러시아 로컬푸드의 강자 전통 꼬치구이 '사슬릭'도 기회가 된다면!
- 여유가 된다면 마린스키 극장(상트)의 공연을 예약해 서 관람해보자. 한국인 블레리노가 출연하는 공연이 심심찮게 보이므로 센스 있는 응원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 사우나(반야)는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꼭 이용하길 추천한다. 그룹 단위(혼성 가능)로 방을 미리 예약해야 하며, 자작나무로 몸을 때리고 사우나 후 바로 얼음물에 들어가는 점이 매력포인트!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 예카테리나 궁전과 지성의 전당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공원 겸 박물관인 예카테리나 궁전은 모스크바 지하철 짜리찌노 역에서 하차하여 출입문으로 나오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러시아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눈부신 건물 중 하나로 알려진 이곳은 이를 그대로 예카테리나 1세의 명으로 지어졌다. 러시아 고유의 양식과 서유럽식 왕궁 건축양식(정원은 프랑스식)이 혼재되었고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는 황금빛 '호박방'이 유명하다. 궁전은 총 55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연회가 열렸던 'The Great Hall'을 구경할 수 있으며, 궁정의 상체험도 색다른 별미로 즐길 수 있다.

다음 행선지인 모스크바 국립대(1755년 개교)는 러시아 내 수많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 중 세계 최상위권의 전통과 수준을 자랑하는 대학으로 바로 옆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 또한 지하철로 쉽게 갈 수 있는데 도착하여 처음 건물을 접하면 그 규모에 압도된다. 현재 건물의 모습은 1940년대 말, 스탈린 집권 아래 건축가 레프 루드네프에 의해 리모델링된 것으로 모스크바의 3대 마천루라 불린다. 입장 시에는 여권을 경비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스크바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 예카테리나 궁전에서 귀족 코스프레 중
- 도개교의 다리가 열린 그 순간 칠칵!
- 에르미타주 미술관 내부 모습
- 명문대 위용을 내뿜는 모스크바 국립대의 야경
- 에르미타주 미술관 앞에서 친구와 나란히!
- 로마의 산피에트로 대성당을 본뜬 카잔 대성당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들어가며

러시아 여행을 통틀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도시이다. 영어로는 'Saint Petersburg'로 '성 피터의 도시'라는 뜻이며, 러시아에서는 이 도시를 '뻬쩨르'라 부른다. 러시아 도시 이름에는 유독 '부르크' 표기가 많은데, 이는 독일어로 도시를 뜻한다. 특히 이곳 상트는 표트르 대제의 애착이 강한 도시로 독일을 모방하려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상트를 '유럽을 향한 창'이라 칭하고 진흙 위에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를 초래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인해 상트는 러시아에서 '흙 위에 세워진 도시'라 불리기도 한다. 주요 관광지로 도개교, 피의 사원, 성 이사악성당, 카잔성당, 네바강, 에르미타주 미술관, 푸시킨 생가, 마린스키 극장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 대표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은 또 유럽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 계획도시로 모든 도로와 도시 시스템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느낌이 강하다. 모스크바의 관광지가 교통연계의 효율성이 떨어져 불편한 느낌이라면, 상트는 전체를 한 바퀴 도는 느낌으로 유연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가 설계되어 있다.

이곳의 불거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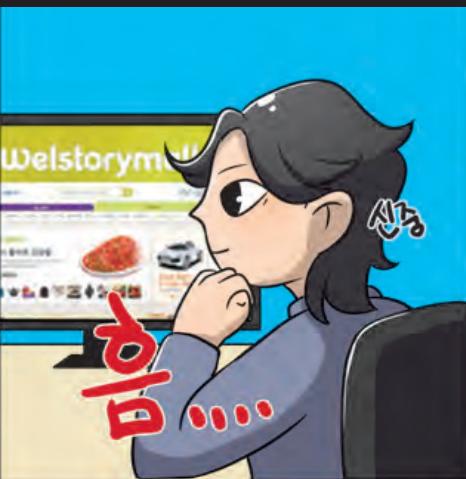
'피의 사원'은 1907년 데카브리스트 당원(1825년 12월 러시아 최초로 근대적 혁명을 일으킨 혁명가들)에게 살해당한 알렉산드로 2세를 기려 세운 사원으로 이곳 또한 소문난 촬영 명소이다. 로마의 산피에트로 대성당을 본뜬 카잔 대성당은 바로 건너편 스타벅스에서 감상하면 그 웅장함이 주는 감동이 배가되니 참고하자. 전체를 조망하는 감상이 끝났다면 내부에 들어가서 초를 구입한 뒤 각 이콘들의 뜻을 파악하며 불을 밝혀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어두운 밤, 다리의 은은한 불빛과 함께 영화 <인셉션>의 한 장면처럼 웅장한 개폐식을 선보이는 도개교를 구경해보는 것도 좋다. 교량이 완전히 열렸을 때 그 사이로 보이는 이사악 성당과 어우러지는 그림이 유명한데, 이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뷰포인트를 찾아가야 한다. 다만 시기에 따라 도개교 개폐시간이 상이하고 백야시즌에는 시간이 더 유동적일 수 있어 현지에서 민첩하게 움직여야만 정확한 개폐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또 강가 주변 Bar에서 밤새 파티를 즐기며 다리가 열리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백야시즌만의 백미이기도 하다. 때때로 러시아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군함 '오로라'를 실제로 운항하기도하는데, 이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에르미타주 미술관은 전시된 작품 한 점당 1분씩 소모된다가 정했을 때, 전체 관람에만 5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은 미술책에서만 보던 레핀, 칸딘스키 등의 작품을 모두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최근에는 신관을 오픈했다. 칸딘스키 등 유명 화가의 작품은 대부분 신관에 있으므로 이 점 유념해 두자.

『슬기로운』 직장생활

부제 : 행복지수 차곡차곡 쌓아주는 '신바람 마일리지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Intro 신바람 나는 '신바람 마일리지' 들어보셨나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때늦은 태풍과 연이은 비소식에 뜨거운 한여름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계절의 시간은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때이른 아침과 늦은 밤이면 풀벌레소리를 실은 설익은 가을바람이 뺨을 간지럽힙니다. 살랑거리는 바람의 끝자락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가을바람처럼 우리회사에도 신바람 나는 '신바람 마일리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는 외종에 썩트는 마일리지 情



나눔으로 쌓은 마일리지, 다시 나눔으로 함께하는 선순환



우리회사 나눔봉사단에 기부할 수 있고, 웰스토리몰에서 쇼핑도 할 수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요! **BANG!**

서로서로 칭찬하고 마일리지 받아가요



Bye Bye **불쌍**

열악한 주거환경, 따뜻한 손길로 확 바꿔드려요!

나눔봉사단, 위기가정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의 현장



- | | |
|---|---|
| 1 | |
| 2 | 4 |
| 3 | |
- 봉사활동을 벌인 나눔봉사단과 관내 자원봉사자
 - 세척한 물품을 다시 배치 중
 - 집안의 물품을 모두 꺼내 분류 작업 중
 - 오래된 창틀을 재정비하는 봉사자들



집은 가족이 편안하게 쉬는 안락한 공간이라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가정이 많다. 우리회사 나눔봉사단은 이러한 가정을 시급히 구호하고자 관내 봉사단체와 함께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내밀었다. 3일 동안의 힘든 봉사활동이었지만 보람찬 나눔의 현장을 찾아가보았다.

관내 봉사활동과 연계해 깨끗한 환경으로 틸바꿈

현관문을 열자 악취와 함께 집안 곳곳에 뒤엉켜 있는 옷가지와 쓰레기가 나눔 봉사단과 관내 자원봉사자들을 맞았다. 도배를 하기 위해 벽지를 뜯고 옷을 들추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바퀴벌레떼가 사방에서 튀어나왔다. 이곳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딸 3명이 살고있는 사천시 동금동의 한 연립아파트.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우리회사 나눔봉사단은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자원봉사단체 천사회, 한전KPS사랑나누미와 함께 위기가정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의 구호 의뢰로 진행됐으며, 이날 봉사자들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집 5호'로 선정된 이 가정은 열악한 주거환경 만큼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안고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다.

분기별로 위기가정 선정해 개선활동 확대

봉사활동 첫날, 오전에는 집안의 물품을 모두 꺼내고 쓰레기를 분류해 동사무소에서 지원한 폐기물 수거차량으로 운반했으며,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화장실 변기 수리를 비롯해 도배, 장판 및 타일 교체, 베란다 페인트칠 작업, 전기 시공, 싱크대 및 옷장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마지막 날에는 밖으로 꺼내놓은 살림도구와 옷가지를 세척하고 건조해 다시 집안으로 배치하는 작업을 끝으로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할머니는 "아이들이 그동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걱정스러웠지만, 봉사하신 분들의 노력으로 집안이 확 달라져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사회공헌팀 이희권 부장은 "우리회사는 작년부터 상·하반기에 각각 두 가정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분기별로 확대해 보다 많은 위기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I INTERVIEW 1

십시일반,
더 많은 KAI인들의 참여 기대해요
기체생산1팀 조우현 PS

이날 나눔봉사단 활동에 세 번째 참여한 기체생산1팀 조우현 PS는 이전에는 다문화가정 지원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우연히 사천시 곤명면에서 실시한 지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접하고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지난 집수리 활동에 참여한 분들이 고생했다는 말에 같은 구성원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도배 같은 기능봉사는 못하지만 누구나 와서 조금이라도 일손을 도와 주면 힘든 일도 덜어줄 수 있고, 특히 이런 일은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며 더 많은 KAI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기체생산1팀은 관내 유형 문화재인 구계서원(경남 문화재 10호)에서 문화재를 가꾸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MINI INTERVIEW 2

좋은 분들과 함께
보람 느껴 뿌듯해요
세부계통팀 오픸수 연구원

대학시절 동아리활동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온 세부계통팀 오픸수 연구원은 지난 8월 해외봉사활동에 지원했다가 탈락해 아쉬운 마음이 많았다. 그런데 마침 이번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을 보고 곧바로 지원해 함께하게 됐다고 한다.

주소지도 완전히 사천으로 이전해 어엿한 시민으로서 봉사활동을 참여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하는 오픸수 연구원은 "좋은 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 이웃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고 활동이 마무리될 때의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한 기분은 언제나 보람으로 다가온다"며 "앞으로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시간 나는 대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저절로 행복해진단다”

기체생산기술2팀 김영훈 부장이
박금석 사원에게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알렉산드르 이자에비치

솔제니친 지음 / 문예출판사 펴냄

맡고 계신 일도 많으시고
업무적으로 다른 지원 분들이
부장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도 찾으신 데도 이렇게
저에게까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공 이반이
자신에게 나온 스프 속
건더기 하나에
감사함을 느낀 것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삶이란 ‘욕심’이라는 만만치 않은 유혹을 떼어내어야만 가능하다. 기체생산기술2팀 김영훈 부장은 어릴 적 접했던 책을 다시 만나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그리고, 그의 그런 느낌을 공유하고자 후배에게 책을 선물했다.

책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 전하려 선물

우리회사가 설립되어 시천에 자리하면서 근무해온 기체생산기술2팀 김영훈 부장은 이제 4년차인 박금석 사원과의 현격한 근무년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수와 부사수 같은 친밀한 관계다. 김 부장은 어렵고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 얼마 전 책을 통해 깨달은 작은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오래된 소설 한 권을 건넸다.

197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이자에비치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선물한 김영훈 부장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서재에서 읽은 책에 대한 기억을 우연히 만나 다시 읽기 시작했고 새로운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 책은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가 누명을 쓰고 스탈린 치하의 비인간적인 수용소에서 생활한 3,653일간의 시간 중 단 하루만을 그린 작품이다.

초심 잊지 않고 지금처럼만 업무 임해주길 당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직장생활을 수용소 생활과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주인공 이반이 자신에게 나온 스프 속 건더기 하나에 감사함을 느낀 장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호기심에 접한 책 한 권으로 인해 작은 것부터 만족하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김 부장은 박금석 사원에게 책과 함께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부장의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박 사원은 평소 장난도 잘 치고 아래개그도 곧잘 하는 김 부장의 책 선물에 고마움을 전했다.

“맡고 계신 일도 많으시고 업무적으로 다른 지원 분들이 부장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도 찾으신 데도 이렇게 저에게까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말씀대로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을 그린 책이라고 하니 저도 하루 만에 책을 다 읽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점은 업무역량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건은 태도나 책임감이라며, 박금석 사원은 늘 그런 업무자세를 지켜나가고 있어 대견하다고 말하는 김영훈 부장은 초심을 잊지 않고 지금처럼만 해주길 바란다고 박 사원을 격려했다. 아울러, ‘비교는 만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치를 잘 깨닫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책 속에서 찾길 당부했다.



2018 OCTOBER



CEO 동정

방산업체 최초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식 참석

9월 11일 김조원 사장은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방산업체 최초로 획득해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사진 좌로부터 이재호 윤리경영지원본부장, 김조원 사장, 한국표준협회 이상진 회장, 한국표준협회 박진성 본부장)에 참석했다. 우리회사는 지난해 10월 김 사장의 취임 이후 기업 가치를 윤리경영에 두고 윤리경영 선포식을 시작으로 독립적인 윤리경영 전담본부를 신설해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왔다. 또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불합리한 제규정을 개정하여 시스템에 의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날 김조원 사장은 “KAI가 이번 ISO370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경영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맞게 한층 강화하고 국제표준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의한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국가항공우주산업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개발본부 팀장 대상 CEO 소통경영 간담회 참석

9월 17일 김조원 사장은 우리회사 개발본부 팀장을 대상으로 CEO 소통경영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경영이슈를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보다 유연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재경실장의 경영현황 발표와 함께 윤리경영본부장의 윤리경영경과 발표가 이어졌으며 개발본부 팀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간의사항 등 활발한 의견들이 오갔던 간담회에서 김조원 사장은 각 팀장들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구성원들은 우리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KAI의 미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CEO 소통경영 간담회는 앞으로도 오찬과 연계, 월 2회로 정례화시켜 우리회사 관리자와 구성원의 활발한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NEWS PANORAMA



KF-X 사출좌석 PVI(Pilot Vehicle Interface) 평가

8월 21~30일까지 KF-X연료환경팀 및 관련 계통의 참여 하에 KF-X 사출좌석 PVI(Pilot Vehicle Interface)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의 목표는 조종사와 인터페이스 되는 각 계통의 구성품(사출좌석, 헬멧 시현장치, 산소 및 Anti-G 공급장치 등) 개발 시 임무와 인체 크기에 따라 변하는 조종사 장구류에 각 구성품들을 종합하여 KF-X를 운용할 조종사에게 최적의 임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평가를 위해 탈출계통 개발업체, 조종사 장구·장비류 전문업체, 헬멧시현장치 개발업체 등 총 4개의 해외업체가 참석했고, 조종실·탈출·생명지원·헬멧시현장치 각 계통의 실무진 및 LM TA, 크레인 및 현장 시설 지원을 위한 기술원, 사내·외 조종사 및 엔지니어가 참여했다.



T-50TH 태국 2단계 및 2.1단계 정비사 교육 참석

9월 3일 우리회사는 T-50TH 태국 2단계 및 2.1단계 정비사 교육을 참석하였다. 대상자 총 68명이 참여해 4회의 차수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번 정비사 교육 차수에서는 정비사 16명을 대상으로 보급장교 과정 외 3개 과정을 9월 3일부터 20일까지 교육하고, 9월 12일과 13일은 광주 제1전투 비행단을 방문해 현장 실습교육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청 헬기 5호기 초도운용요원 교육 실시

9월 3일 우리회사는 조종사 4명, 정비사 4명을 대상으로 경찰청 헬기 5호기 초도운용요원 교육을 참석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조종사는 이론교육 3주, 시뮬레이터교육 1주, 비행교육 7주의 일정으로, 정비사는 이론 및 실습교육 7주의 일정으로 11월 30일까지 교육 예정이다. 이번 경찰청 헬기 5호기는 외부보조연료탱크와 비상탈출구 표식 조명장치 등의 장비가 추가 장착된 최신형 헬기로 경북경찰청에 납품되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수주 경쟁력 강화 모색 위한 사업본부 해외사업부문 워크숍

9월 6일 사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사업본부 해외사업부문의 해외사업1/2실, 민수사업실 및 사업지원실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장기 비전 2030 달성을 전사 차원의 수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과제발표, 조별토의 및 토의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해외사업부문은 '수주 Biz 영역 재점검 및 역량강화'를 주제로, 민수사업부문은 "성장 동력 확보"를 주제로 4개의 분임조가 약 120분간 열띤 토론을 주고받았다. 사업본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제반 현안 및 개선방향에 대해 '전사 수주경쟁력 강화방안'과 '민수사업 중장기 발전 전략'에 반영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AI 사회공헌활동



나눔봉사단 가족과 함께 저소득 가정 위한 고추장 봉사활동

9월 8일 우리회사 나눔봉사단 구성원 및 가족 30여명은 사천지원봉사센터에서 사천지역 저소득가정을 위해 직접 담근 사탕의 고추장을 70여 가정에 전달하였다. 한기위를 맞아 여름철 수확한 햅고추를 사용해서 태양초 고추장을 만들고 저소득 세대에 전달하는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사천지원봉사센터 강정미 선생님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KAI 나눔봉사단을 보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관내 중·고등학교에 청소년 위한 신간 과학도서 기증

9월 17일 나눔봉사단은 관내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9개교에 학교 당 100여 권의 신간 과학도서 기증식을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였다. 각 학교 별 과학도서는 학생들이 꼭 읽고 싶은 신간 과학도서를 선정해 초록우산아리아재단과 교육청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후원하게 되었다. 도서기증을 받은 남양중학교 손태준 교감선생님은 "학생들의 마음의 양식과 이공계 진학을 위해 꼭 필요한 도서를 기증해 주셔서 KAI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관내 복지시설에 장애인·저소득층 위한 이동용 차량 기증

9월 20일 나눔봉사단은 장애인평생학교에서 관내 복지시설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위한 복지차량을 기증하는 기증식을 실시했다. 이번에 기증한 복지차량은 사랑의 공동모금회가 주관하여 사천지역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천자활센터, 장애인평생학교, 사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12인승 승합차 2대, 경차 1대를 기증했다. 사천자활센터 김민권 실장은 "KAI에서 지역 내 어려운 시설들의 이동수단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게 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8개 학교 및 단체 참가해 에비에이션 9월 캠프 진행

에비에이션 9월 캠프에는 경남 하동 금남중학교를 비롯해 총 80여 개 학교·단체가 참가했으며 9월 5일에는 항공소년단 충북연맹 중학생들이 방문했다. 평소 KAI라는 회사가 궁금했고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보고 싶었다며 아직 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했다. 이날 학생들은 에비에이션 센터 4층 전망대에서 오리엔테이션 퀴즈와 함께 항공기동 견학과 시뮬레이터 체험을 즐겁게 체험했으며, 이론학습 시간에는 항공기 코딩 과정을 실습하면서 원하는 대로 비행기를 움직여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많은 학생들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KAI에서 멋진 항공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독자 여러분의 소감을 보내주세요.

● 부산의 야경과 함께 달린 김선일 선임 가족의 시티 투어 버스 체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시고, 가족들과 불어오기 시작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기사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주에 바로 예약하고 가족과 버스를 타고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절별로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여행,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소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일반 독자들도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에 대해 매달 꿈꿔 전달해 주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사보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KAI, 파이팅입니다!

황영학(독자)

● 이번 사보의 <KAI 인문학> 코너에서 다룬 최초로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룬 몽골피에 형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 꿈을 계속 이뤄가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따랐던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비행'이라는 결실을 맺게 했군요. 인문학뿐만 아니라 여행과 소식 등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는 <Fly Together>의 다음 호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박동혁 사원(고정익생산기술팀)

● 매월, 매호 일찬 내용으로 업그레이드된 사보를 늘 즐겁고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이번에 들어온 16기 신입사원들이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현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등등 신입사원 분들의 입사 이후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뤄줬으면 합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하나의 항목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국일 연구원(구조시험팀)

● 회사와 함께 고생하시며 회사가 이루한 성과와 역사의 페이지마다 함께 하셨던 분들의 정년퇴직 이야기를 보며 우리회사는 참 좋은 회사라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또 선배님들의 보람과 자부심에 금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지만 앞으로 나올 우리 사보에는 우리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할애된 페이지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재 책임연구원(위성본체팀)

<Fly Together>를 읽고 난 소감과 독자 퍼즐의 정답은 KAI 블로그(<https://blog.naver.com/korea aerospace2030>) 사보 독자세상 코너의 댓글이나 이메일(wowdan@korea aero.com)로 보내주세요. 5명을 추첨해 고급 손목시계를 증정합니다. 10월호 사보 이벤트는 KAI 블로그를 참조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독자세상

본부별 사내 기자단



PUZZLE. KAI 독자 여러분 중 뇌섹남, 뇌섹녀를 찾습니다!

Q 표의 식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1~9까지의 자연수를 이용해 빙usan을 채웠을 때 'A'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할까요?

	-		+	1
×		-		×
	+	1	+	
=		=		=
6	-		=	A

9월호 정답 : 72



<Fly Together> 사보 이벤트

이제 KAI 블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우리회사 사보 <Fly Together> 모바일 앱이

KAI 블로그(<https://blog.naver.com/korea aerospace2030>)와 통합되어 홍보채널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제 <Fly Together> 사보의 이벤트를

우리회사 블로그를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도 블로그를 통해 많이 올려주세요!



참여방법

1. KAI 블로그에 들어간다.
2. 사보의 내용 중 KAI 로고가 있는 곳을 캡처한다.
3. KAI 블로그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로 캡처한 사진을 사보의 소감과 함께 게시한다.
(댓글에 부서명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에서 KAI 모바일 사보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앱을 통해서도 블로그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18년 10월 10일~10월 19일

상품



T-50 모형(스탠드형)
(1명)



파리바게트 케이크
기프티콘(3명)



투썸플레이스
커피 기프티콘(5명)

9월호 당첨자

- | | |
|----|---|
| 1등 | KFX기능품설계팀 강주현 |
| 2등 | 시험교정검사팀 박진호
KFX기능품설계팀 박종철
KFX유입착륙팀 박상현 |
| 3등 | 조립생산팀 배주환
형식인증팀 김경민
비행계측팀 김중식
구성품질팀 신연희
기체생기팀 박성모 |